

집권·존립 기반... 대선 이후 내다보며 ‘명운 건 일전’

2野 호남 총력전 왜?
민주 총선때 잃은 텃밭 되찾기
국민의당 과반 지지율 확보
호남 주도 정권창출 지지 호소

‘5·9 장미대선’이 막판으로 치닫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 대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야권의 심장인 호남 민심의 지지는 대선 승리의 견인차이기도 하지만 추후 정치적 기반과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호남 민심의 지지 없이는 공고한 집권 기반 구축이 쉽지 않은데 대선 승리의 의미도 일정 부분 퇴색할 수 있다. 여기에 대선 이 끝나면 곧바로 내년 지방선거 모드로 돌입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확고한 호남 민심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최소 60% 이상의 지지를 얻어 지난 총선, 국민의당에 빼앗겼던 고토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선 승리는 물론,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도부 인사들은 물론 수도권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호남의 눈높이에 맞는 각종 공약 제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한다면 내각과 청와대 등에 과감하게 호남 인재들을 발탁하며 호남 민심의 지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승리한 것은 자체 동력보다는 민주



지난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박영선 의원이 문재인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에 힘입은 결과”라며 “결국 이번 대선을 계기로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이자 뿌리로 다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에게 이번 대선에서 호남 민심의 지지 확보는 정치적 생존의 절대 조건이라는 평가다.

실질적인 ‘호남당’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호남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대선 승리가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 당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수 정당인 국민의당은 정계개편의 물살에 휩쓸릴 수 있고 4당 체제의 협치 구조 속에서 정치적 비중을 상실하면서 존재감도 약화될 수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정치적 명맥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민주당 문

재인 후보에 밀리는 결과가 나오자 호남 국회의원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당장 지난주부터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을 필두로 박주선·주승용 공동선대위원장 등 호남지역 현역의원들은 호남에 총출동,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호남지역을 돌면서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론’을 강조하는 한편 “호남이 ‘호남당’인 국민의당을 지켜줘야 한다”며 안철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20조원 규모의 광주지역 대선 공약 보따리를 풀어놓는 등 호남 경제 생태계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호남이 지난 총선 국민의당을 만들어 다당제를 출범시켰다”며 “안철수 후보 지지는 호남에 의한, 호남을 위한 국민의당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26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앞에서 국민의당 소속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 두번째)와 함께 유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영선 앞장... 인지도 높은 의원들 투입 인해전술 국민의당 박지원 진두지휘... 주승용·박주선·권은희 등 총력

2野 호남 유세 누가 이끄냐

제19대 대선을 10여일을 앞두고 야권 텃밭인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불꽃 유세전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7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불꽃유세 경쟁을 펼치며 호남 민심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에 현역 국회의원이 이개호(담양·장성·영광·함평) 의원 밖에 없는 탓에 인지도가 높은 의원들을 매일 투입하는 ‘인해전술’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이개호 전남도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이형석 광주시장 상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전 지역을 돌며 ‘든든한 후보, 능력 있는 후보, 민주당으로의

진정한 정권교체’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박영선·전해철·김두관·안민석·김태년·조승천·표창원·박주민·진선미 의원 등과 고만정 대변인 등이 유세전에 가세해왔다.

이 가운데 ‘주포’로는 박영선 의원이 꼽힌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문(非文)계 의원으로 불려왔던 박 의원이 적극 나서 광주·전남 반문(反文) 정서를 해소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또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소송부대’로 불리며 자신 지역구의 상가와 아파트 단지, 경로당을 돌며 불꽃 유세전을 진행 중이다.

반면, 국민의당의 ‘주포’는 단연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이자, 지역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입심’ 출기로 소문난 박 위원장이 사실상 광주·전남지역 유세전

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유세전을 통해 문 후보의 ‘호남 홀대론’과 ‘대북 송금 특검’을 강조하며 반문(反文) 정서를 자극하는 유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은 권은희 광주시장 상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박주선 공동선대위원장 등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가세해 유세전을 이끌고 있다.

전남지역은 당 원내 대표를 맡고 있는 주승용 공동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황주홍·정인화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총력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민의당 광주선대위는 27일부터 권은희 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광주의 아침을 깨운다’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최고 전문가 ‘드림팀’... 국무총리 무조건 다른당에 양보

안철수 승부수 ‘국민내각’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구성하는 통합정부, 이른바 국민내각의 구성 방식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 후보는 27일 경북 경주 경주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파괴세력을 제외한 합리적 개혁세력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28일 집권 후 통합정부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이를 통한 개혁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 후보 측은 집권시 여야에서 강경 친문(친문재인) 및 강경 친박(친박근혜) 세

력을 제외하고 국회 선진화법을 넘어설 수 있는 180명 이상의 의원들로부터 통합정부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면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 후보는 여야는 물론 이념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으는 내각 이른바 ‘드림팀’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각 당의 대선 득표율에 따라 통합내각의 지분을 나눠 갖는 방안도 제기됐다.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5일 “여러 방법론이 있지만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지지표가 90%를 넘을 텐데 이 90% 넘는 표 갖고 국민통합

내각 구성하면 가장 안정적인 기반을 갖고 재벌, 정치, 헌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확신만 주변 오히려 40석 갖고 뭘 하겠느냐는 네거티브가 불안정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성은 통합정부 구성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 측은 이미 국무총리의 경우 국민의당 인사들이 맡지 않겠다고 선언해 다른 당에 양보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국민의당은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 개혁세력들을 협치로 모아낼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국민의당 호남표심 잡기 동교동계 원로도 총동원

김원기·권노갑·정대철...

광주·전남 유세 지지 호소

야권 텃밭인 호남표심을 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뉘어 있는 동교동계 원로들까지 총동원됐다.

민주당 상임고문을 맡은 김원기 전 국회 의장은 27일 광주 유세에 동참하며 ‘호남 인사 홀대론’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원내 1당에게 힘을 불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이날 광주시의회를 찾아 “원내 제1당이 정권을 잡아야 현 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지만, 소수정당이 대

통령직을 차지해서는 또 다른 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문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국민의당 권노갑 고문과 정대철 고문도 이날 광주시의회를 찾아 안철수 후보에 광주·전남이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호남홀대론에 대해 권 고문은 “열린우리당이 새정치민주당을 깨고 나갔을 때부터 호남홀대론이 시작됐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정당을 깨지지 않았던데 호남인들이 상당히 서운해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오후 열여덟시 회견 20여명과 면담한 권 고

문은 “저도 5·18 유공자가 돼 똑같은 동지”라며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드시 건의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측 원로들은 선거운동이 과열돼 양측에게 상처가 되는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김원기 고문은 “대선이 끝나면 다시 손을 잡고 정권을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어 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고문도 “지금 이렇게 다투지만 너무 극약하게 싸우면 선거 후에 곤란해질 것”이라며 “양측 모두 심하게 다투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스마트벤처캠퍼스 청년창업자 모집

스마트벤처캠퍼스란?
 스마트벤처캠퍼스는 청년 창업자의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을 5 단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5,000만원 (평균)

신청자격 만 39세 이하 청년인 자로서,
 -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팀) 또는
 -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모집규모 24명(팀,社) 내외

모집분야 앱/웹, SW, 콘텐츠, 융합 등 유망지식서비스
 全 분야

사업설명회 일정

1차_광주·전남권 사업설명회
 - 일정 : 2017. 5. 11(목) / 14:00 ~ 16:00
 - 장소 : 광주 I-PLEX 1층 컨퍼런스룸

2차_전북권 사업설명회
 - 일정 : 2017. 5. 16(화) / 14:00 ~ 16:00
 - 장소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

문의처
 ☎ 062-350-9344, 9338

신청기간 2017.4.26(수)~5.22(월) 17:00까지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

스마트벤처캠퍼스 1기 성과

30개 팀 선발 / 평균 5000만원 지원

“총 15억원 지원” ※ 2017년 4월 기준

약 50억원 매출액, 1.5억 고문, 119명 자영업자